



## 사랑B가 내려와~ 13회 홈커밍데이

글: 김민우 / 편집: 이은영

지난 5월 12일, 본교에서 제13회 동거회차 졸업 20주년을 기념하는 모교 방문 행사가 열렸다. 경북지대 13회 졸업생들은 "사랑B"라는 별칭을 정하고 지난 1년간 동거회 모임을 통해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발전기금을 모아 왔다. 모처럼 발전기금은 본교 4층에 사랑B 집현전을 만드는 데 이용하였으며, 남은 기금은 추후 지원할 발전기금 및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본과 시과대학에 있었던 현 의학전문대학원 건물에서 기념사진 촬영으로 시작된 이번 모교 방문 행사는 변화한 모교의 모습과 발전을 둘러보고, 사랑B 집현 모금식으로 이어졌다. 많은 재학생들의 학수갈채를 받으며 치열한 경쟁에서 1부 본행사가 진행되었다. 13회 졸업생 박석호 동아리위원장은 연서실에서 자신의 졸업감정을 전담투표를 인용하여 "우리에게 있어 있는 이유는 분명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 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제 우리가 모교에 애착을 더할수록 우리도 더 행복하다"고 하며 모교 방문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기도 하였다. 이어서 송근태 제13회 동거회차 회장과의 만남에서 학업 및 취업 동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모교 발전 기금과 동문회 발전 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또한 봉사학적이 없고 재직 중인 은사님 소개와 애정 모음이 담긴 동명성 감상을 통해 당시에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는 제13회 동거회차 연회에서 은사회와 오찬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오후에는 축사로 이듬해에 1박2일째 걸린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졸업 후 동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 재학생들로 하여금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모교와 후배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모교 방문 행사 가 발전하여 후배들을 위한 특강이나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대화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던 재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 구강 보건을 위해! 6월 9일, 치아의 날 행사

글: 김민우 / 편집: 이은영

사람의 치아 중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세며 영구치 중 가장 먼저 태어나는 영구치가 있다. 한 6세 정도가 되면 첫물을 먹고 올라오는 이 치아를 육아구라 하는데, 이 (6세구)를 기념하는 날인 6월 9일, 이 날을 기념하여 각 대학마다 구강 보건 행사가 진행되었다. 지난 6월 9일 대구 동성대에서도 치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주최하며, 경원대학 치위생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도 참여하여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했다. 이 교육을 위해 치위생사들이 피곤하였고, 현직 치과의사들도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다. 오후 2시부터 대구 백화점 앞 광장에서 대한구강보건협회 홍보실에서 오신 당사들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오후 4시까지 보양상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치아 건강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을 제공하였다.

홍보담당 부스에서는 열, 첫물, 치아 등 구강 건강제품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며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렸고, 구강검진부서에서는 첫물집 안에 등 구강검진관리법을 무료로 교육하였다. 특히, 치아에 가려 받을 수 있는 구강 질환을 알린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사해 줄은 관심을 받았는데, 검진 부서에 1차적으로 치아 검진을 받은 시민들 중 중 다 세밀한 검진이 필요한 영역에 이연한 검진대 학교 시과대학 구강검진차원으로 이동하여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치아 안에 숨어있는 질환을 통해 검진 대상자의 치아를 세척한 후 현미경으로 그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치주 관리 법이나 치료법을 안내하기도 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매우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차로, 무더운 날씨에 대비를 위하여 세너 중상기로 나온 시민들에게 6월 9일 치아의 날을 맞아 치아 건강법을 홍보 하고 치아 위생용품들을 배포하는 등 구강 보건에 유익한 활동을 위해 많은 치과의사들과 치위생사들이 애써주었다. 하지만 행사진행이나 역할만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사 초반 주의 속에서 무 활력을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인 데 비해 홍보 부스 수가 부족했고, 일부 시민들이 장사를 지켜지 않아 한때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치아의 날 행사로 통해 우리 시민들이 구강 보건 교육이나 안내를 할수록 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행사가 그 감동을 해줄 해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치아의 날 행사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촉구 시민들 양속 모두 성숙한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 치과에서 환하고 있는 영구치 검사



▲ 구강보건을 위한 다양한 행사



▲ 치과에서 환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동창회 가입,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홍성희 / 전도노부회

지난 3월 우리 대학 동창회 동창회들이 정식으로 지리대학·지리학전문대학 동창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생들의 관심을 받아오는 가운데 실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 학생회장 및 자문 심재용, 부학생회장 김성용, 3학년 대표 공광수, 2학년 대표 추성우, 2학년 부대표 박민, 2학년 이대표 윤성재, 2학년 총무 정희영, 1학년 대표 김영진, 1학년 부대표 손준희, 1학년 이대표 남영진, 1학년 총무 정진호)

심재용(이학 심): 지난 3월 동창회 재학생들이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유예된 상태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학성 대표로서 학생들의 의견을 아끼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동창회 가입에 대한 질문을 먼저 여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이학 김): 일단 학생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동창회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늘어났고, 지난주 있었던 **나눔에도 많은 지원**을 위해서 성공적인 취재를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정희영(이학 정): 아직까지는 대표단으로서 할만한 일이 없지는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광수(이학 공): 3학년이라 별말이 들어가 보지 전보다는 반응을 실제로 볼 수 있고, 피레고수들의 강제로 복귀로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졸업 이후 전보다 여러 정보들이 부나 하나 중요하게 느껴지는 만큼 동창회가입에서 재학생에 알맞는것이 **세우나눔 졸업생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김: 지난번 주처럼 행사특강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위치에 계신 지리사 산학실용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진(이학 김): 지난번 특강 시간은 대표단과 진행되었는데, 소수의 인원만 참가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져서, 산학실용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남영진(이학 남): 지난번 있었던 3회 산학실용의 흥겨움이 꽤 식사 자리를 가라하고 있었던 것 이외에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1학년이다 보니 일과 많은 것이 너무 있었는데 많은 산학실용이 되어서는 자리가 없었으니 절망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윤성재(이학 윤): 저는 지원한 출신들이 다양한 배경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리대학 출신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는데, 동창회 가입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저처럼도 산학실용을 하고자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 재학생으로서 동창회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 어떤 점이 있을까?

손준희(이학 손): 저는 동창회가입해서 학성 일과 중에 동창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에 학생들을 초대해주기로 하는데, 예로 드신 글로 대회 말고도 **영화 관람이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회가 정할때부터 좋은 혜택 별점을 비롯해서 동창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들을 소개해서 **프로세서물 제작해주신** 학생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한 학생들이 때문에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소개해달라고 할 때 산학실용을 알릴 수 소개시켜드리고 해도 정보가 부족해 답답하기도 하고 막상 자신의 자리를 가려면 여자를 가려면 상담도 고민하기도 합니다.

박민(이학 박): 학년에 따라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산학실용에서 빠르거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창회에서 공식적인 일정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가는 행사들 같은 행사 가 있다면 산학실용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양한 프로그램 지식까지 함께 얻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신청자는 안에서 일정을 드러낸 정식으로 입학 후 **동창회보다 자취 개개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동창회 행사 뿐만 아니라 산학실용이 많아지고 있는 곳의 다양한 소식도, 그리고 최근 많은 지리대학 사제에 대한 동창회적 입장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윤: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지리 2학년의 경우 실제 **지리 실습이 시작되는데** 입거지를 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많은 산학실용에 도움을 받았지만 동창회 차원에서 전체 연계를 한 번 해주셨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심: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일단 알아두고 하고 후에 결정이 나고 바로 가입이 이루어지다니 학생들 중에는 **무명적인** 사실도 없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가 바랍니다.

공: 학금을 운영하는 입문. 특히 대표로서 학금을 위해 지출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재가를 운영을 하는 경우간에 출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는 알지만, 동창회 가입 당시까진 **지리대학의 의견**에 전혀 **피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하는 혼란스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추성우(이학 추): 처음에 동창회 가입을 한다고 있을 때 **지문이** 들었습니다. 동창회라는 것이 학교에서 산학실용이 들어온 것을 끝까지 따라 갔기 때문에, 주는 것들의 혼란스러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동창회원으로서 졸업생과 다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계승자가** 있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 계승하는 어려울 수 없는 문제지만 많은 학생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종의 장으로서 긍정적인 면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창회 지원 방식 또한 동창회에 다시 후원하는 행사가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애정과 달란된 행사가 되면서 변화가 있던 것 같습니다. **소속감을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이고 정기적으로 동창회적 발전, 학교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행사가 생기기 바랍니다.

손: 저는 동창회로서 소속감이 들려면 **장학금 혜택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직접적인 혜택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장학금인데 지금은 한 학년에 한정된 한 학기만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니 학생들 중에는 아직까지는 동창회 가입에 대해 무명적인 학생이 있는 것에서 사실입니다.

남: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 동창회 장학금 혜택도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기 초 많은 학금에서 학년 대표가 내는 식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가입에 대해 논하지 못하고 동창회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정진호(이학 정): 저는 아직 나름의 행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학비를 고려해볼 때나 학생들이 아직 연세가 많은 상태이므로 **아무래도 행사 참여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일정에 백해파리 보니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 학생 선문으로 가입하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리가 37개로** 가 있어 되었는데, 특히 몸의 사용도 졸업생 같이 못하게 되면 **가수가 달라지는데 동창회라는게 졸업 필수를 떠나다 보니** **가수별 분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졸업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유급이다 보니 유급을 어떻게 좀... (당동 있음)

심: 네, 의견들은 잘 들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정의를 해본 동창회 가입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및 동창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겠고, 다양한 행사에서 동창회 산학실용을 통해 졸업 후 권리와 지리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이 있었습니니다. 반면 동창회에 학생들이 가입하는 사제가 없기 때문에 무명적인 의견이 있는데, 동창회에서 학생들의 지리대학에서 및 장학금 혜택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동창회에 가입하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로지 이런 것들을 통해 동창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소망하는 것이니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토론 중인 학생들 (왼쪽부터 2학년 윤성재, 박민, 2학년 공광수, 2학년 추성우 학생)

# 만 75세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50% 경감

## -교체주기 7년, 새로운 틀니 필요할 경우 추가 1회 인정

▲ 조영숙, 김민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는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은 자들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를 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수가의 50%만 내야 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6일 9시 제 12차 건강보험심사위원회(이하 건강심)에서 '09~'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인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를 201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건강보험심사위원회 심의 중인 모습

수가는 치료비환 기준으로 약당 97만 5370원으로 결정되었다. 병원은 1억 1천 8000원, 종합병원 1억 6000원, 상급종합병원은 1억 1천 3000원으로 정했다. 환자의 본인 부담은 50%로 치료비환의 경우 환자가 약당 48만 769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전보다 노인들의 치료비 부담은 상당 수준이 줄 것으로 보이나, 자식들은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므로, 재정적으로 부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심에서는 치료가 급하게 반대할 필요 없고 사전 협의 후나 리베이스(인출)와 틀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환자가 요구 시 재발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는 조건을 붙여 급여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전협의 후나 수가는 치료비환 기준으로 약당 22만 원, 병원은 23만 원, 종합병원 23만 9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24만 9천 원으로 정했다. 환자 본인 부담은 50%로 치료비환의 경우 11만 원이다. 다만 노인인 있었던 사전 협의시 리베이스의 경우에는 재대로 된 조사 없이 정책적인 측면에 의해 급여화 추가되어 버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인들의 임시틀니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수급지 형태로 자료 제출이 없으면, 이에 의해 정책적인 수가는 책이 추후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 급여화 정책 시행이 1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치열 정책연구소를 발표 자료를 보면 일사단행 노인들 38%가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들이 보험 급여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일부 내용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지역의 사용자들을 찾아서 지원으로 가입 다녔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홍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틀니 보험 급여화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고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변형, 본인 부담률, 교체주기 등 환자는 물론 정책적 필요를 고려해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보아야 하며 모든 관련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에 대응할 때에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항목	내용
적용종	만 75세 이상 성악 또는 학력의 본인 무직자 환자
지불방법	진료 단계별 포괄형식(단행)
교체주기	현재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후에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하여, 새로운 틀니가 필요할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인정(3개월 이내 6회)
무상보정기간	3개월 이내 6회
기타	- 의 재료(금속식 등)를 사용한 틀니 장착 시 치료보정 제외 - 중독급여 혜택을 위하여 사전통지 및 심사-영양통합 치료신청서제출, 다중종합의 진찰의 재료 포함

▲ 노인 건강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모습

이번 결정은 노인 틀니 보험 급여화 실시하는 측면에서는 환영을 받아도, 아직은 여러 가지 내용과 기준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7년 이후 재급여는 필요에 무관한 수치를 단지 국지 재검토 근거만 설명하여 불충 있다. 치과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시 논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한 경우와 같은 모호한 추가 급여 기준 대상에 있어서 편차에 없게 할 것이야 1회 추가 급여 횟수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 보완이 할 것이다.

대한치과치사협회 치과재료정책연구소(이하 치열 정책연구소)에서 5월 17일에 발표한 노인들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자료(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설문조사 14개 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남자 35.2%, 여자 64.8%, 평균 연령 74세)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험한 보험급여화 항목들 중 가장 무신중으로 개선요청 희망하는 항목은 '부분틀니까지 보장 확대'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적용 나이 보장 확대' 24.1%, '틀니부담률 감소' 19.7%, '사후관리비용 포함' 16.8%, '보험비용 알리기'를 포함하지 않음' 12.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분틀니 사용자들(완전틀니 사용자에 비해 많이 이에 대한 정책 시행 요구도 높게 나타나고, 만 75세 이전 틀니 환자들이 많은 상황들 등 꼭 적용을 꼭 확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이 66% 이상으로 부담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생리적 노년층들을 위한 수 있는 치료적으로 사후보환에 대해 추가가 절실하다. 모든 정책 급여화 후나 지원이 시행되고 있는 데 반해, 레진상 틀니로 보험 급여를 인정할 것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는 레진상 틀니가 지원되고 상성이 좋지 못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우려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겠다.

12차 건강심에서 틀니 보험 급여화 이의제 추가적인 설명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진료로 개선이 복잡하며, 지역별에서 보험금, 지역별, 정신장애, 자해상장애 확대 적용하며, 소아기산 14개월간을 치료비환을 포함한 15개월간에 대해 소정금수의 100%를 개선 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치과연구 정책들의 경우 만 14세이하 소아의 제 1,2,3차까지 급여기준을 확대기로 결정하였다.

국 치과연구에 급여연구시 행정부담 감소 및 심사부담 과감하게 줄이기 위하여 76회 일출전지시 후: '조기부담' 연구시제, 1904 추후 하향조정예정 후: 40만 이상 연구시제, 차22 차후처로 차지 기, 차근 할때후 추 연구부담 조항을 명확히하여 진료에 심사차량에서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15개 항목: 차-1보통치, 차-1-1치아진찰시, 차-1-2차의 제정제, 차-5근골격계, 차-6근골격계, 차-6근골격계, 차-9치수출, 차-10방수, 차-11근골격, 차-11-1 근골격, 차-12 근골격, 차-13출진, 차-15하위항상, 차-18금근골격, 차-23-1치서제, 차-39치아연구진출  
(\*\*) 서명시기는 관련정책 결정 시에 필요하면 9월부터 적용예정이다.  
(\*\*\*) 서명시기는 7월부터 적용예정이다.

진료 단계별 포괄형식 (단행제) (시책의원급 기준)			
	단행형식	백분율(%)	금액(원)
	전세 포함	100%	975,370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5%	146,306
2단계	인상 제작	25%(40%)	243,844(390,150)
3단계	악간 검사 제작	15%(25%)	146,306(536,456)
4단계	납치서 시작	20%(75%)	195,075(731,531)
5단계	최종제작 및 포함	25%(100%)	243,844(975,370)

▲ 진료 단계별 포괄형식

# 공정위, 유디치과그룹 사업방해로 '치협에게 과징금 5억'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치협 "결코 수용 못 해" 강력 법적 대응 시사

공정위, 치협 / 공정 위원회

지난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홍수 이하 공정위)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치협에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결정했다고 하면서 치협과 유디치과그룹 간의 논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치협이 지난해 3월~8월 기간 중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치협 홈페이지 구인사이트 단말탑 이용 및 치과 기구제 포함 등을 방해하는 등 불합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 병합된 유디치과그룹은 그동안 치과 진료를 포함하면서 치협과 관련한 대입요청을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협측에 대한 이번 과징금 부과 조처 역시 유디치과그룹 측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이 제 법적 의료계에서는 오는 8월 네트워크 법 시행을 앞두고 둘 사이의 구상된 대립이 다시 수면위로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치협 "유디치과, 시장 질서 흐린다" VS 유디치과 "치협의 진료방해는 위법"



이처럼 두 단체간의 구상된 대립은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트워크병합된 유디치과 '가' 계열명령에 불응으로 서울 물러 나가지 전라 치과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당시 치협은 "사실상 '가' 치과의사가 '해' 치과를 소유해 의료질 위반 소지가 있다" "과징금 부과조치를 입었다" "무로 스캐닝이나 자기진료로 환자를 유인한다는 이유로 유디치과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후 당국의 싸움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시정의 정황을 짚은 것은 이른바 "베일론 파동"이었다. "유디치과가 치과 진료를 만들 때 불법행위를 사용이 금지된 베일론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제간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다. 이후 유디치과 측이 "베일론은 모든 치과 기공소에 사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치과 장애 때문에 치과단체의 공개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둘 사이의 이갈이도 극대화했다.

### 공정위, 치협을 유디치과 진료방해 행위 인정

'유디치과의 단말탑 이용금지' 의 경우 치협이 지난해 3월 18일 유디치과 소속인 회원 28명에게 협회 홈페이지 단말탑 이용제한을 제한 것이다. 이에 유디치과가 집행장기 기체문성이라 2011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치협은 그 다음에 이용제한조치를 취했다. "치과기구제 공급업체 거래 중단" 의 경우 치협이 지난해 치과기구제업체 대표들에게 불법네트워킹 치과들에 대한 협회차 방해에 협조를 당부했다는 것이다. 대한치과기공소협회(이하 치기공) 기공을 제작 거래 중단 '가' 경우 치협은 지난해 치기공과 '불합법네트워킹 치과기공소'에 수권 관련 상호 협조 조를 협회하면서 "각 치과기공소에 참여 및 활동 선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으며, 이에 따라 치기공은 회원사를 비롯한 기공소에 문자로 "유디치과의 '가' 기공장은 상거래질서에 위해되오니 이의외항시 거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던 바 있다. 전 한국치과기공소 대표이자 임원 및 시노대표회장 임을 양희로 "네트워킹지에서 피박하는 '가' 기공장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치과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네트워크 치과-기공소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작성해 선언했다. 공정위는 "치협이 위와 같은 행위들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한다"고 "치협이 유디치과를 제정금지행위 ▲협회 홈페이지단말탑사용금지에 공정위 제정명령 7일간 게시명령 ▲과징금(5억)의 부과를 했다.

### 네트워킹의 반응 "유디치과의 승소는 치과의사의 공정한 경쟁 정착에 도움?"

공정위 발표 이후 많은 네티즌들은 유디치과의 반입 일몰조치는 합당하다고, 이러한 조치도 없이는 의료계에서, 치협은 반입 일몰조치로 인하여 수단이 줄어들어 것에 대해 경쟁 상태를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치협 측을 들어보는 네티즌 측의 또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들은 의료 분야가 적대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경쟁이 존재하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진료를 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도덕이므로 의료의 특수성을 배제한 공정위의 논리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으로 맞서고 있다.

### 치과의사회 "잘못된 결정이 부른 피해, 공정위가 책임져"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공정위의 이번 발표로 인해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이 부도 당하고 불합리한 집단으로 과도한 것은 물론, 지역주치의로, 서양진료 등 진료에 일몰은 2년7월 이 치과의사들은 아무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치협을 위시해 여러번 여러 차례에서도 정부시에서 발맞춰 저소득층 노인돌봄사업, 실업률 저-복소도 등 약자사업, 장애인취업지원 수당안정,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숨은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치과의사들은 원천으로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과도하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치과제 스스로 지역발전 과징금, 환자유인불안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 인한 공정위의 잘못된 것으로 단계를 밟아, 향후 치과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을 유디치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1인1개소 의료법 통과로 2라온드야 돌입

이번 결정은 유디치과의 반입 일몰조치에 대한 합당성에 대한 판결이 아닌 치협이 유디치과 측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유디치과의 치협 간의 본거적인 싸움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한 유디치과법"에 의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의료법에 따르면 1명의 의료인은 1개의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유디치과처럼 1명의 의사가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합은 불법이 된다. 이 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디치과 측은 치과제간의 경쟁적 합의를 계속 지적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를 근거해서 "치과제를 비롯해 의료계에서는 자제를 인하여는 법원이 공익이 되어있다"면서 "치과의사들이 전체적인 환자를 지킨다"는 자선들의 해탈하기만 언급하려는 지 않겠다"고 말했다.



▲ 공정위, 치협에게 과징금 5억 시사

이에 치협 관계자는 "유디치과그룹은 1명의 치과기구가 국내에 115개의 병원을 소유하면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자료에서 "관련 규정이 따라 비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진료 행위를 입는 경우에 대해 고차고차 자정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이익과 처벌 공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결국 과징금으로 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치협은 "법정적인 제정단체에 국치 그리고 일몰된 문자와 협상을 일으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면서 앞으로의 대응에 더욱 주력한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사태

## - 현재까지의 진행과 전망

김민준 / 편집자



▲ 통합진보당에서 탈퇴한 신상진씨의 구당원들이 불탑적 행동

실제에는 의욕적으로 인선 당원제 목이'로 받아들이고 5월 12일 열린 제 중앙위원회에서 비 대위를 중심으로 한 신당권파의 물리적 승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내의 어떤 집파 를 통해서도 부정선거에 연루된 당선자들을 검거로 사수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판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 ■ 검찰수사의 타당성



▲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집파



▲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집파

한편 검찰은 21일 통합진보당서 선거를 담당한 인사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원들과 경찰과의 물리적 마찰이 발생하였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공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법이 구할 수 있는 영역이고, 통합진보당은 법이 구할 수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도출해 내는 데 실패한 상황이다. 그간 구당권파들은 신상진씨와 보고서' '정통' 연을 제시했을 뿐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고 비례대 원에게 이는 당원인 것이다. 확고한 '물증'을 다수 집에서는 것은 소수파인 진보포사위가 가진 조사 권한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당권파들은 '몰이하는 투표용지'와 같은 확실한 물 증에 대해서도 '몰이' 다시 불었다. 따위의 남측하기 힘든 반박을 거듭해 왔다. 확실한 '물증' 내지 정 통'이 없다 하여도 누가 했다는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무죄'가 아니라 '무실'이며 자신들 이 책임질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다. 실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실인범을 알 수 없으므로 살 인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한 것이다.

최근 민주노동당 시절, 적지나리를 무한번적 하는 N.제갈에게 자하비인 PD제갈의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비근박적 타협을 통해 넘어갔던 일이 벌어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례에도 불구하고 구당권파는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킬 것을 신당권파 에게 요구해 왔다. 그들이 공법적인 '정통' 단문은 '무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정통'이 아니라 '물증'을 밝혀낼 수 있는 권한을 자신 수사기관에 결론을 할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구 당권파는 오히려 검찰수사를 '복'으로 규정하고 그 검찰수사를 불리추진 것이 진보포사위와 신당 권파라는 '물타기'를 시전하였다. 진보신당 측 논평이 '덧붙여 시작 거부 등으로 이 문제가 해결을 늦추어 결과적으로는 검찰포사위적 받게 될 피해를 예방한 책임은 구 당권파에게 있음을 기억' 하

한다고 말한 것도 그런 '물타기'를 피하기 위함이다. 신당권파의 입장 또한 진보신당 측 논평과 비 슷하다. 기본적으로는 검찰수사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그간 검 찰의 형태에서 나온 측면이 크다. 한 정부 들어 검찰이 민주노동당의 당원명부를 가져가 공무원 및 교사사 담임명부를 처벌하려고 시도했음을 상기시키면 검찰이 당원명부를 취재자로 보고 유감할 뿐 여부와 관계부정한 처벌을 가하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진보정당들은 과거 국가기관이 당원명부 를 가져갈 경우 중앙당 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도 부담한 헌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므로, 그것이 검찰수사를 거부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반박한다 해도 적어도 그간 진보포사위의 조사 권한이 미치지 못했던 선거 담당한 인사선 업체에 대한 수사의 공적상처지는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 ■ 정치권 차원에서 제명논란



▲ 김대중의 당원, 김대중의 당원



한편 지난 5월 23일 원내 제 1당인 새누리당 측에서 부정 선거의 주요인물인 이석기, 김 대원 통합진보당 당선자에 대 한 제명에 대하여 민주통합당 과 의사를 타진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새 누리당 정당의 당선자 중 문제 성, 김철에 당선자에 대한 제명 논의도 포함시키려고 사실상 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국회의원의 제명에 법적 절차는 제각각인 3분의 2의성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제명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의 제명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무 당선자가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무정선거에 연루된 '정통'이 포착되었지만 법적인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은 아직 아무것 도 없다. 때문에 검찰결과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재판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야 할 것이다. 물론 통합진보당 내 신·구당권파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서 보수진영 일파에서 중 국 주시대의 국제집회를 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예까지 새누리당이 전 담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커트를 매년 근근적 이유는 사실검증을 통한 대 여권공제 차원 그 이상이 아니다. 특히 공적포괄권 전, 미의 민주통합당의 제명인 반대자들 을 확인한 후 발표한 것은 아예없는 중북주의자임을 감싸려는 또 하나의 중북집단으로 규정하려는 전 형적인 행태는 공세이다.

이렇게 당 외부에서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비상대책위원은 문제가 되는 비례대표 당선자 4인이석기, 김대원, 조윤숙, 황신에 대해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명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하였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 및 출당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당권파측은 비례대표의 결정 자체의 무당성을 주장하여 긴급히 헌신대위원장을 상대로 직무해임청구 기꺼운 신청을 제기하는 등 '물증'을 보존 상태이다. N.제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한 대립상황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 한번 N.과 박노의 대립으로 결국 2008년 현노동당 분당사태의 재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 나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이을 행선지를 찾기 위한 유신, 노획, 심상정 들어 그 정도로 강단있는 선택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며, 분당에 대한 고고는 현재 구당권파의 입에서 언급되었다. 따라서 이 사태에 대한 가능한 유력한 중북집은, 검찰수사를 통한 구당권파의 세력약화로 문제가 복잡국면 이 벌어지는 것이다.

주) N.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계열  
PD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계열









# 학년별 소식

부은 마음을 받고 입학한 1학년들은 그동안 정산없이 허우성어리남 허우허우를 보냈습니다. 공학에도 학이었던 우리는 어느새 학부학을 졸업하였고 생각하여서는 또 다른 관문에 들어왔습니다. 학부학 실습 공에는 공공하고 동기들을 사귀는 홀로 덕분에 아플래르르도 간익 을 더 잘 챙기는 1학년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학부학 실습을 끝냈습니다.

전차에서는 스타크래프트 1위, 학교 4등, 보령 3위의 계가를 이 루었고, 전차학 활동에서 재규와 같은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관 심의 최성을 받은 학우도 있었습니다.

1학년의 학업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이 되었으며, 그 중 학우는 남미노스 불운하고 1학년 내 평점만이 진행 중이며, 기숙 사할 EUS는 1학년으로 가득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 성과 그림자를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 사귀는 동기들의 합성사진을 통해 평을 더 곤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정한 우리 동기들, 왜 아직 1호 CC는 단행하지 않는 걸까 요? A군과 B군이 은근슬쩍 짜깁기했던 기류가 느껴지는데요. 아직 은 수면제로 피우르지 않았습다. 초반엔 핑크빛 소식을 기대해줍 니다.

## 1학년

## 2학년

이제 학기도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돌아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다. 어느 학년이나 학년가지로 학기 초 최대 학습은 '조별'이었습니다. 좀사 학과론 성취 분을 주치의 온여 물론 '결론'과 같은 형상으로 표현된 36번 차이를 손에 친 학 생들, 작년과 달리 새로 깨닫어 단장된 책임성은 너무나도 좋은 사귀어지던 학년 제일 재할 같이 쓸 수는 없기에 책임성이 열리는 날 차차적인 학사 사귀어지 같 은 분위기에서 서로의 불꽃을 자랑하곤 하였습다.

4월의 최고 학습은 '국호시대'였습니다. '학우제도 이상해, 니들이 내 가 가르친 맥을 통해 내가 내는 것 같은데?'라는 교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겁이 없다면 기술적인 피드백을 통해 책임성을 포기하고 공부해 해하는 실습을 저 학기도 있었습다.

5월은 역시 사귀의 계절이었습니다. '사귀의 CDF'에서 열었던 책임행리는 저 학년 내 3번째 CC를 맺어주었습니다. 사실 당사자들이 공개하기도 전에 수 많은 목적자들이 등장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다. 이제 6월의 반도 지 나갔고, 어떤 학기 최대의 학습은 아마도 기말고사 및 성적사상이 될 것으로 예 상합니다. 공부하는 2학년은 오히려 전 추성우 대표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질 지 기대해 봅시다.

## 3학년

4학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방향도 없이 다른 학년보다 일찍 시작한 2학기 가 조금은 버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떤 학기든 끝내면 졸업이라는 생각에 마지막 힘을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1학기 마지막 case파임을 위해 학업에 몰두했던 5 월에 학업이 차나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짐해 2학기를 올린 것이 참 다정스러운 열입니다. 다같이 고민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4학년이 되어 우리 학 년에 정사가 없었습니다. 우선, 미소연과 전정학 학우가 1학년때부터 학부학 기 위 온 사귀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공군, 김기성, 민승우 학우도 결혼으로 학부학 연대감을 졸업장이 되었습니다. 남은 학기 동안 이공군, 김기성 학우도 유부남과 유부녀 공업에 몰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날은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후반 평면에 들어온 3학년 편찬성에 대한 기대감도 감 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 1학기 편찬성들을 들면 서 단언적인 편찬성을 찾아하기 위해, 평면상황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시집 세도 만들고, 학PA를 챙기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들의 편찬된 평면상황 적 을과 4학년 2학기 case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겠습다. 특히 학으로 있을 국사 태도를 위한 공부도 슬슬 시작해야 할 듯 합니다. 아직은 ST case파 외에 Observation case에 학이어서 생각할 거를서 있는 학우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편찬행적을 위해 달려가는 마지막 관문에 대한 준비는 재을 리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전한 졸업 및 국사 편찬행적을 기원하는 4학년 동문이었습니다.

## 4학년

3학년 편찬성 생활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처음 평면에 들어가 서는 실수도 많았다고 은도 많이 남지만 무언가 공에 한방학 다가 선다는 지은데 다들 들어온 것 같았는데요, 시간이 차날수록 여섯 여필학한다 학에 각설이 늘어나네요. 모든 공들이 저희가 평면 평면에 들어피우길 기 다단다고 말씀드릴 때면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학기든 처음 학년 최대 이벤트는 학우제도 졸업행이 아니었 습니까. 장년제를 걸우신 최경은 교수님과 석영민 교수님을 모셔 고 다내해서 지루 못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편찬 발표 받고 열도 없었지 만 무사히 재파라게 놀다 왔습다.

그리고 모하마의 학 이벤트 4학년 대표 선거였습다. 다음 학년에는 자 리까지만 학습을 하려는 말라 큰 책임은 학우가 담당하 단장합니다. 평면대로는 김용은, 원진일 대표는 학민국, 학과대표는 석희, 학수부 대표는 석민준, 총무는 이혜민 학우가 각각 맡아주었습니다. 우리들의 4학년을 잘 부탁해요~

어떤 학기든 여섯행행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슬프지만 학PA를 챙하 는 평면학업과 새로운 평면행행은 준비하면서 만들려는 열기로 보내고 있는, 여섯 4학년이었습니다.